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최재*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6. 17(토) ~ 7. 1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파견대학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University of Philippines, Manila입니다. 하지만 이 대학에서 생활하지는 않았고 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수빅'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어학원입니다. 규모 및 시설에 대하여 말하자면, 어학원은 5층 건물입니다. 2층 입구에 항상 가드분들께서 상주해 계십니다. 저희 방은 5층이었고 3인 1실이었습니다. 주변에 숲이 있기 때문에 벌레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가 복도 중앙에만 위치해있어서 복도에 와이파이족들을 자주 보거나 와이파이족이 되실 겁니다. 물론 저도 와이파이족이었고요. 식사는 매일 3끼 나오고요, 한식 위주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식단은 만족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어학원 내에 수영장이 있어 시내로 나가서 놀지 않을 때는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수영하면서 놀았습니다. 어학원 이사님과 원장님께서 매우 친절히 돌봐주신 생활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강의실은 2층부터 5층까지 있어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1층은 현지 선생님들 사무실이나 휴식공간이라 강의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쉬는 시간 또는 일과를 마친 후에는 쉬면서 놀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과 더욱 친해지려고 자주 1층에 가서 같이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1달 간 지내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매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룹 수업과 1:1 수업이 각각 4시간씩 있습니다. 총 8시간 수업을 합니다. 어학원에 도착해서 처음에 레벨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 레벨테스트의 성적을 기반으로 그룹수업의 반이 나누어집니다. 보통 4~5명의 학생들이 한 반으로 구성되어 그룹수업을 같이 듣습니다. 강사분들은 매우 열정적이시고 하나하</p>

	<p>나 차근차근 알려주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과제는 많지 않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만 한다면 딱히 과제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룹수업은 주어진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1:1 수업은 교재 내용과 강사님과의 이런저런 말하기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룹 수업시간에 집중하시고 1:1 수업시간에 최대한 강사님과 많은 대화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매주 주말에 단체 활동을 나갑니다. 주로 토요일에 나갔습니다. 첫째 주 토요일에는 어학원 원장님과 이사님께서 수빅에 위치한 유명하고 비싼 수영장과 해변이 같이 있는 Anvaya Cove라는 곳에 놀러갔습니다. 다같이 수영도하고 바다에서 뛰어놀고 점심도 먹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수영복은 필수입니다. 둘째 주 토요일에는 고아원 봉사 활동을 갔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돌아왔습니다. 셋째 주 토요일에는 요트를 타러 갔습니다. 요트를 타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바닷물에 빠지고 요트 안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역시 수영복은 필수입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씨는 우기에 갔기 때문에 덥고 비가 자주 옵니다. 따라서 우산은 꼭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여름에 갔기 때문에 이 시기 필리핀은 우기여서 비가 자주오곤 했습니다. 한국보다 조금 더 덥게 느끼기는 했지만 어학원 내에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밖에 자주 돌아다니다 보면 욕나올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제가 이번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필리핀 계엄령'이라는 소식이 터져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빅이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안전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총기사고나 다른 안전사고를 걱정했었는데 한 달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p>

<p>숙소</p>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숙소 시설은 10점 만점에 7점이나 8점을 줄 것 같습니다.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빨래의 경우 각 방마다 빨래 통이 있는데 빨랫감들을 넣어서 이틀에 한 번씩 세탁실에 제출하면 직원 분들이 다 빨래를 직접 해주십니다. 다만,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와이파이는 없습니다. 일단 와이파이는 한국처럼 잘 될 것이라는 기대는 먼저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느낀 점은 한국 와이파이가 진짜 빠른거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각 방마다 와이파이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각 층 중앙 복도에만 설치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각 층 중앙 복도에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고 저 역시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숲이 있기 때문에 벌레나 모기 물릴 것을 대비하여 버무리같은 바르는 약을 챙기시길 바랍니다.</p>
<p>식사</p>	<p>학교식당(0) 홈스테이 () 외부식당 (0)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매일 3끼 모두 어학원 식당에서 식사가 제공됩니다. 메뉴는 주로 한식입니다. 맛은 괜찮았습니다. 양도 적절했구요. 다만 밖에 나가서 현지 음식을 맛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녁을 안 드시고 밖에 나가서 드시곤 합니다. 이 경우 저녁 체크리스트에 안 먹는다고 체크를 꼭 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교통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FB와 택시입니다. 일단 밖에 나가시려면 둘 중 하나는 꼭 이용하셔야합니다. FB는 우리나라의 마을버스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평일에는 평균 10분~15분마다 옵니다. 주말에는 평균 30분~50분마다 옵니다. 비용은 13페소입니다. 택시는 거의 시내에서 놓고 어학원으로 돌아올 때 탔습니다. FB가 오후 8시 이후에는 거의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시비용은 5명 미만 기준으로 120~200페소입니다. 택시 정류장마다 부르는 가격이 다릅니다. 현지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류장에서 타야 제일 싼 가격에 탈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한국 택시와는 달리 거리에 따른 비용이 아닙니다. 인원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서 어학원에 오더라도 4명이 탄 비용과 6~8명이 탄 비용은 다릅니다. 혼자 타거나 3~5명이 탄 가격보다는 6명 이상이 탄 가격이 더욱 싸겠죠.</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290,000	
여가활동 비용	80,000	
기념품 비용	35,000	
합계	4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출국 전에 상비약을 꼭 챙겨가세요. 저는 이번에 가서 물갈이로 며칠 고생했습니다. 물
같이 때문에 필리핀 현지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고 돈도 많이 깨졌습니다. 감기약, 설
사약, 버물리 등 약은 꼭 챙겨 가시기를 권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이번 4주 어학연수는 제 인생에 있어서 오래 기억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4주가지고 영
어실력의 비약적 향상을 바라고 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영어 말하기에 있어 자
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만이라도 얻고 오자라는 목표를 잡고 갔어요. 결과적으
로 그 목표는 성취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대화할 때 낯설게 굴지도 않고 낯가리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 머물면서 새로운 경험들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과 시야를 넓혀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또한 4주 동안 미운 정 고운 정 든 어학원 원장님과 이사님 현지 선생님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졸업식 때 울었습니다. 필리핀 4주 단기어학연수
동안 저의 부모님 역할을 해주고 친구 또는 가족 역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참가하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필리핀 도착하고 첫날 수빅 투어 중 수빅 베이에서</p>	<p>요트 액티비티에서</p>
	
<p>Anvaya Cove에서 바다와 수영장 리조트가 모두 있어 해외에 놀러온 느낌이 들었다.</p>	<p>어학원 및 숙소 전경. 수영장 농구대도 있어서 시내로 나가지 않을 때는 안에서 놀았다.</p>
	
<p>어학연수 온 친구들끼리 처음으로 다같이 회식했을 때. Xtremely Espresso의 음식들은 최고 따봉.</p>	<p>4주 간의 어학연수가 끝나고 받은 수료증. 시원섭섭했고 지금 수기를 쓰는 중에도 여전히 후련하지만 선생님들이 보고싶다.</p>